

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의견서

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

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(본부장 조석제, 이하 법원본부)는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.

**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의 위원 구성은
법원공무원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.**

- 이미 설치된 '법관인사분과위원회'는 법관 인사의 권력화 또는 남용을 차단하고 인사운영의 밀행성, 비투명성으로 대변되는 인사 불신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위원은 총 5명으로 전체 위원이 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설치가 예정된 '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' 역시 오래된 인사제도의 적폐를 해결하는 데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'법관인사분과위원회'와 다를 바가 없는 만큼 위원 선정에 있어 법원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하여야 함.
- 법원공무원의 인사제도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 내부의 문화와 구성원간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될 여지가 많음. 따라서 타 분과위원회보다 법원 공무원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함.
- 사법행정 자문회의에 이미 외부위원이 4명이 선정되어 있는 만큼 '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'는 외부위원이 아닌 법원공무원을 중심으로 선정해야 함.

- 이에 법원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
 - ‘법관인사분과위원회’와 같이 외부위원은 제외
 - 법원본부 추천 위원은 전체 위원 중 최소한 1/3 이상 구성
 - 내부공모절차의 구성원은 관리자를 제외하고 직급과 성별을 고려하여 선정

2019. 12. 24.

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